

## 혼돈 (Chaos) 과 질서 (Order) 는 하나다

"인식의 차이가 그 개체와 집단 혹은 종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과거의 계 (Old System)에서 폭발한 엔트로피를 성장과 새로운 질서 창조의 시스템으로 수렴시키는 리더십이 필요할 때다."



최근 미국에서는 "월마트대드(Walmart Dad)"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다. 이는 거세게 불고 있는 글로벌 경제불황에서 귀결된 현상으로, 직업이 없는 남성들이 낮 시간 월마트에서 장을 보고 아이 양육을 대신해주고 있는 현상을 일컫는다. 잇달아 발표되고 있는 거시경제지표들은 1929년 대공황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하며 그 충격을 감내해야 하는 사람들은 혹독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10년 전 IMF외환위기의 아픈 기억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양상의 글로벌 경기침체에 맞서게 되었다. 따라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그 긴장감의 수위가 높을 수밖에 없다. 각 기업들이 발 빠르게 필사의 생존전략을 수립하고, 위기극복이라는 공동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사회적 합의와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과거의 고통에서 배운 우리의 경험적 자산 덕이라 할 수 있다.

나는 이점에서 우리 사회의 역동성과 미래의 모습을 보고 있다. 오늘의 세계적 경제불황이 견잡을 수 없는 혼란(Chaos)으로 비춰지지만 그 속에는 새로운 질서(New Order)를 향한 강한 힘이 잉태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활동계는 환경과 더불어 공존하기 때문에 애당초 절대 균형(Absolute Equilibrium)은 없다. 시간을 축으로 변화하는 환경과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피할 때(Dynamic Equilibrium)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인류가 진화해온 메커니즘이며 우주의 진행 원리이다.

혼돈이 두려움의 대상인가? 아니면 새로운 질서 형성의 에너지원인가? 인식의 차이가 그 개체와 집단 혹은 종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과거의 계 (Old System)에서 폭발한 엔트로피를 성장과 새로운 질서 창조의 시스템으로 수렴시키는 리더십이 필요할 때다. 통찰 리더십은 비선형적이며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선언적으로 리드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조합해 나가는 자기조직화 체계(Self-organizing System)를 완성하는 것이다.

나는 고객사들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가지고 신문 지상이나 뉴스에 귀를 기울인다. 어떠한 잣대로 현상을 파악하고 변화를 꾀하는지, 그 속에서 우리의 미션(Mission)은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고민한다. 새롭게 전개될 글로벌 경영 환경에서 CK 고객사들이 미래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글로벌 역량을 강화시키고 인재 혼(魂)을 심어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인 것이다. ✍

Written by C.E.O 노상충 (James Roh)

*James Roh*

